

수입차 품질·제품 만족도, 국산차보다 월등

■ 자동차 전문 리서치 ‘마케팅 인사이트’ 10만명 조사

AS 부분만 유일하게 약점 지적 국산차 제품 경쟁력 강화 절실

수입 승용차의 등록대수가 시장 개방 27년 만에 1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자동차 품질과 서비스 전반에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국산차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의 유일한 약점은 애프터서비스(AS)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전문 리서치 회사인 마케팅 인사이트는 지난 7월 전국 10만1821명의 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받은 느낌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고객 만족도 영역과 소비자들이 체험한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점 수를 집계하는 체험품질 영역으로 구분돼 이뤄졌다.

고객 만족도 평가는 구입과정과 구입 후 고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다루는 판매서비스 만족도, 구입한 제품의 기능과 성능,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제품 만족도, 차량 점검과 정비 등의 만족도를 따지는 AS만

족도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3개 부문 모두 만족은 1000점이다.

판매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수입차가 766점, 국산차가 747점으로 수입차가 다소 앞선 가운데 수입차와 국산차 1위는 각각 벤츠(812점)와 르노삼성차(765점)가 차지했다. 르노삼성차는 국산차에서 13년 연속으로 이 부문 1위를 지켰다. 자동차 구입 후 1년 이내인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제품 만족도에서는 수입차 646점, 국산차 576점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를 월등히 앞섰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해(38점)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수입차에서는 아우디(669점)가 1위, 국산차에서는 르노삼성차 593점으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마케팅 인사이트는 “각종 지표 가운데 자동차 판매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제품 만족도인데 국산차 1위가 수입차 평균보다 50점 이상 낮다는 것은 국산차의 제품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수입차로

■ 자동차 고객만족·품질조사 1위 브랜드

구분	종류	1위 브랜드	
		국산차	전체
고객만족	판매서비스 만족도	르노 삼성	벤츠
	AS 만족도	한국GM·르노 삼성	혼다
	제품 만족도	르노 삼성	아우디
	초기품질 문제점수	현대	BMW
체험품질	내구품질 문제점수	현대	BMW
	품질 스트레스 적은 건수	한국GM	벤츠

몰려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제품 만족도 때문임을 짐작케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각사의 정비·점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이 평가한 AS만족도는 국산차 792점, 수입차 773점으로 국산차가 수입차를 앞섰다. 국산차에서는 한국GM과 르노삼성이 81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한국GM은 3년 연속 1위를 복귀한 것이다. 수입차 가운데에서는 혼다가 831점으로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체험품질 평가는 평균 사용기간 3개월 이내 차량의 문제점 수를 집계한 초기품질, 평균 3년 사용한 차의 문제점 수를 센 내구품질, 차를 사용하면서 겪은 스트레스 경험을 헤아린 품질스트레스 등 세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초기품질 문제점 수는 국산차 1.60건, 수입차 1.35건으로 수입차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2002년 초기품질 측정을 시작한 이래 작년에 처음으로 수입차보다 적은 문제점 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0.37건 줄어든 수입차에게 다시 역전당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1.01건으로 수입차 가운데 문제점이 가장 적었고,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차가 1.41건으로 3년 연속 이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구품질 문제점 수는 국산차가 평균 4.01건, 수입차가 2.81건으로 수입차가 크게 앞섰다. BMW가 2.85건으로 이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국산차 가운데에서는 현대차가 3.63건으로 역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기아차 올 뉴 쏘렌토

자동차 판매 10대중 3대 SUV

지난달 2만7688대 팔려 29% 차지

레저 문화 확산과 대형차 선호 흐름을 타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판매된 차 10대 중 3대가 SUV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5사의 상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판매 대수는 9만4834대로 지난해 9월(8만589대)에 비해 1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급인 SUV는 2만7688대가 팔려 29.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23.1%)에 비해 6.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SUV의 판매 비중은 지난 7월 24.8%에서 8월 25.7%로 올라선 뒤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팔리고 있는 승용차의 10대 중 3대는 SUV로 채워지는 셈이다.

SUV 호황은 기아자동차의 신형 쏘렌토와 르노삼성자동차의 QM3가 이끌었다. 지난 8월 하순 첫선을 보인 올 뉴 쏘렌토는 8월 926대를 시작으로 지난달 6353대가 팔리며 국내 SUV 판매 1위에 올랐다. 신형 쏘렌토는 현재 대기 물량이 8000여대에 달해 당분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르노삼성차의 소형 SUV인 QM3도 지난달 719대가 팔리며 SUV 상승세에 힘을 보탤다.

한편, 차급별 판매 비중은 SUV에 이어 중형차(1만6671대) 17.6%, 준중형차(1만6379대)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현대차 ‘아슬란’ 판매가 3990만원~4640만원

지난 6일부터 사전 계약

안전기술·편의사양 등 공개

현대자동차가 6일부터 고급 세단 아슬란의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

아슬란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의 프리미엄급 전륜구동 세단으로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독일 고급차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전략 차종이다. 현대차는 사전 계약 시작과 함께 신차에 적용한 안전기술, 편의사양, 가격 등을 5일 공개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8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된 아슬란은 전방추돌경보장치(FCW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후측방경보장치(BSD) 등 대형세단에 주로 탑재되는 안전 기술을 적용, 주행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높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9에어백 시스템을 기본 적용하고, 사고 즉시 탑승객의 하체를 고정해 부상을 줄이는 하체상해저감장치(EFD), 보행자와 정면 충돌시 후드에서 에어백이 전개돼 보행자 머리 부상을 방지하는 액티브후드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안전사양도 강화했다.

이밖에 조향 방향에 따라 램프가 움직이는 어댑티브 헤드램프, 스마트키를 감지해 자동으로 트렁크를 여는 스마트 트렁크,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 편의사양을 탑재하는 한편 전면 유리와 앞문, 뒷문의 유리창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다.

주행 성능을 위해 엔진은 람다 3.0 GDI와 람다 3.3 GDI를 얹었다. 판매가격은 ▲3.0 모델 3990만~4040만원 ▲3.3 프리미엄 4190만~4240만원 ▲3.3 익스클루시브 4590만~4640만원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프로보

기아차 프로보·쏘울, 獨 디자인상 수상

기아자동차의 콘셉트차 프로보(Provo)와 쏘울이 독일의 자동차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5일 독일 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자동차 브랜드 콘테스트’에서 프로보와 쏘울이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와 우수상인 ‘위너’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디자인팀은 자동차 디자인 부문 최고상인 ‘올해의 팀’으로 뽑혔다.

지난해 제네바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3도어 해치백 모델인 프로보는 기아차 특유의 젊은 감각과 역동적인 디자인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쏘울은 올 들어 레드닷과 iF,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에서 모두 수상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수상 목록을 추가했다. 자동차 브랜드 콘테스트는 iF, 레드닷과 함께 독일의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부동산 경매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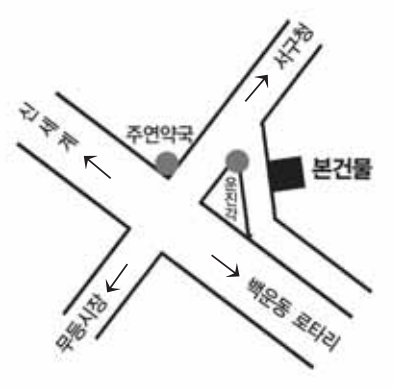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등 제일 오피스텔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